

11.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나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아야 할 유일한 책무는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을 :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이란 틀 안에서 행해져야 할 최후의 저항 수단이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과 처벌 감수의 부분에 있어서까지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보 기>—

ㄱ. 갑: 법보다는 양심에 근거하여 불의한 정책에 불복종해야 한다.
 ㄴ. 을: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은 언제나 정당하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은 실제 시행되는 법률이 사람들에게 해악을 미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를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 안으로는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는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나)	제자: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 ㉠

- ① 모두의 마음속에 한울님이 계심을 알고 타인을 차별하지 말아라.
 ② 기존의 사상을 개혁하고 생활 속에서 종교적 계율을 실천하라.
 ③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정신보다 물질의 개혁(開闢)을 추구하라.
 ④ 우주의 근본 원리를 수행하기 위해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라.
 ⑤ 천주교의 교리뿐 아니라 서양의 과학 기술들 또한 배척해라.

13.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람이 할 일을 저버리고 하늘을 헛되이 사모하면 만물의 참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늘을 존숭(尊崇)하여 사모하느니 차라리 그것을 물건으로 간주하여 관장하고 제재해야 한다. 하늘을 순종하여 찬송하느니 차라리 천명을 제재하여 이용해야 한다. 만물의 생성 원리에 참여하려고 하느니 차라리 만물의 성사 원리를 획득해야 한다.

- ① 모든 인위적인 규범을 초월하여 자연[天]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②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인(聖人)은 본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타고난다.
 ③ 하늘은 사회 질서의 기준이자 인간의 삶을 도덕적으로 주재한다.
 ④ 성왕(聖王)이 제정한 예(禮)를 바탕으로 인간의 성정을 교화해야 한다.
 ⑤ 사물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경지에 이른다.

14. (가)의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격물(格物)이란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理]를 궁구하는 것이다. 이 이치는 형이상의 도이며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이다.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치가 있다. 을 : 격물(格物)이란 인간의 양지(良知)를 마음의 일에서 발휘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의념(意)이 부모를 섬기는 데에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일이 물(物)이고, 이를 바르게 하는 것이 격(格)이다.
(나)	

—<보 기>—

ㄱ. A: 치지(致知)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ㄴ. B: 천리(天理)를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하는 수양이 필요하다.
 ㄷ. B: 마음 밖에 사물이 있으므로 이치 또한 마음 밖에 있는 것이다.
 ㄹ. C: 도덕적 앎(知)이 도덕적 실천(行)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평화에 대한 두 입장 (가), (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가)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며,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 테러,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어야 한다.
 (나) 평화는 전쟁의 종식만으로는 보장되지 않으며,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평화란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라고 본다, (나)는 (가)의 주장이 ㉡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보면서, ㉢ 평화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또한 제거된 상태라고 본다, 따라서 (나)는 (가)에게 ㉣ 사회 제도가 폭력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와 (나) 모두 ㉤ 전쟁과 같은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인간의 정신을 방해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동요와 슬픔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들 자신의 의견에 돌려야 하지,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을 :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의 계시가 필요하다. 또한, 지성적 덕이나 품성적 덕과 함께 세 가지의 신학적 덕인 믿음, 소망, 사랑도 필요하다.

- ① 갑: 인간에게는 신 또는 자연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
- ② 갑: 자연 법칙을 초월하기 위해 만물을 이성적으로 관조해야 한다.
- ③ 을: 인간은 자연적 덕의 실천만으로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 ④ 을: 신앙의 진리는 초자연적이므로 이성의 진리에 귀속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인간은 다른 사물과 달리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진 존재이다.

17.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을 : 쾌락의 양과 질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것들을 평가할 때에는 양 외에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에만 의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보 기>

- ㄱ. 갑: 쾌락은 선이지만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ㄴ. 을: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
- ㄷ. 을: 쾌락은 한 종류이며, 쾌락을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 ㄹ. 갑, 을: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은둔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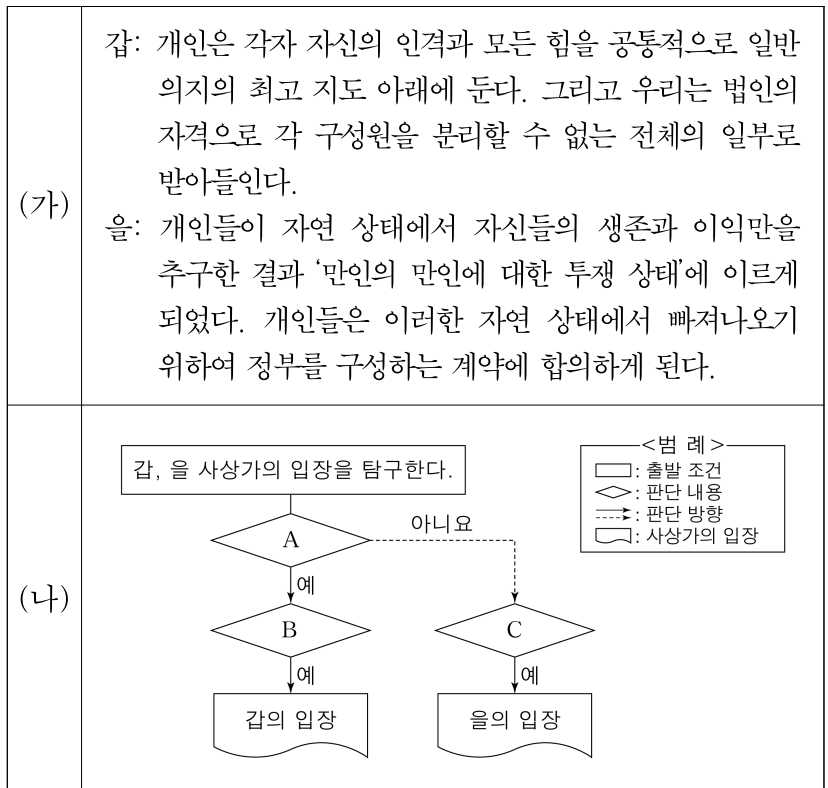
갑 :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과 같은 지성은 사물을 왜곡하고 굴절시킨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이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참된 귀납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탐구해야 한다.
 을 : 감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뿐 아니라 수학적 지식마저도 그 확실성을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보았고, 그 결과 나는 그 의심의 끝에서 확고하고 확실한 하나의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보 기>

- ㄱ. 갑: 전통적으로 권위 있어 온 학설들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 ㄴ. 을: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회의(懷疑)의 출발점이다.
- ㄷ. 을: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져 있는 관념이 존재한다.
- ㄹ. 갑, 을: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유 재산을 폐지해야 하는가?
- ㄴ. A: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가?
- ㄷ. B: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특정인에 의해 대표될 수도 없는가?
- ㄹ. C: 인간의 안전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남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만약 하늘이 처음 인간을 낼 때 성에 선악이 섞여 있었다면,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주체적 책임이 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늘은 사람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 금수와 같지 않으므로 선을 하면 내 공이고 악을 하면 내 죄가 되니 이것이 마음의 권능이다.

<보 기>

- ㄱ. 선을 선택함으로써 인의예지의 본성[性]을 회복할 수 있다.
- ㄴ. 도의의 성과 달리 기질의 성은 사람과 짐승이 함께 얻은 것이다.
- ㄷ. 사단(四端)은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 ㄹ.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치[理]로서의 본성이 바로 기호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다. 스미스는 분업을 통해서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 분업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마르크스는 분업이 노동자의 소외를 일으킨다고 보면서 분업을 부정적으로 본다.

정답 해설

X: 스미스의 자본주의의 입장이고, Y: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고

Z: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의 필연성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X는 낮음, Y는 높음, Z는 높음이므로 정답은 ㉠이다.

11. 소로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사상 비교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 갑은 소로, 을은 롤스이다. 소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양심에 어긋나는 불의한 법에 복종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롤스는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정의의 가치에 위배될 때 행해지는 시민들의 최후의 저항이 시민 불복종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ㄱ.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개인의 양심이라고 보면서, 법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불의한 정책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실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한 사회 내에서 공유된 정의의 가치를 위배하여 사람들에게 해악을 미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ㄷ. 두 사상가 모두 시민 불복종이 위법한 행위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라고 본다.

오답피하기

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중 하나로 공유된 정의관을 든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양심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양심이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본다.

12. 박중빈의 기본 입장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는 원불교를 창시한 박중빈이다. 박중빈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의 진리를 신앙해야 하며, 안으로는 정신문명을 밖으로는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영과 육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답 해설

② 박중빈은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고 한국형 생활 불교를 창시한 사상가로 생활과 유리되지 않은 종교적 계율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동학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박중빈은 물질 개벽 시대에 맞추어 그에 맞춘 정신의 개벽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박중빈은 불상이 아니라 일원이 신앙의 대상이라고 본다.
- ⑤ 박중빈은 서양의 과학 기술은 물질문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3. 순자의 기본 입장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하늘은 그저 자연 법칙일 따름이므로 그것을 존송하거나 사모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려 인간 생활에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해설 : ④ 순자의 화성기위(化性起偽)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오답피하기

- ① 장자의 입장이다. 순자는 인위적 규범인 예를 중시하므로 예를 초월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② 순자는 모든 사람에게 본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 ③ 맹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순자에게 하늘은 그저 자연 법칙일 뿐이다.
- ⑤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 대한 설명이다.

14. 주희와 왕수인 사상의 비교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격물이란 사물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 왕수인은 인간의 양지를 마음의 일에서 발휘하는 것(바로잡음)이라고 본다.

정답 해설

- ㄱ. 주희는 치지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왕수인은 양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라고 본다.
- ㄴ. 두 사상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하는 존천리 거인욕을 주장한다.

오답피하기

- ㄷ. 왕수인은 마음 밖에 사물이 없으며, 이치 또한 마음 밖에 없다고 본다.
- ㄹ. 두 사상가 모두 도덕적 앎과 실천의 일치를 주장한다.

15.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사상의 비교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입장 (가)는 소극적 평화론, (나)는 적극적 평화론이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 등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며, 적극적 평화란 소극적 평화에서 그치지 않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추구한다.

정답 해설

- ⑤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①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평화란 전쟁, 테러, 범죄 등의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상태라고 본다.
- ② 소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평화를 위와 같이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에, 빈곤과 인권 침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 ③, ④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소극적 평화의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평화란 구조적 폭력(예를 들면, 사회 제도가 폭력을 용인하는 것)과 문화적 폭력 또한 제거된 상태라고 본다.

16. 에픽테토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사상이 얹은 스토아학과 사상이인 에픽테토스, 율은 그리스도교 사상이인 아퀴나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중시하면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정신을 방해한다고 보고,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인 신과의 합일에 이를 수 없다고 보며 자연적 덕과 신학적 덕을 실천하고 내세에서 신과의 합일을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정답 해설

- ① 에픽테토스는 인간에게는 사건을 바꿀 능력은 없지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즉 신 또는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할 능력은 존재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②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아퀴나스는 자연적 덕의 실천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으며, 종교적 덕의 실천과 신의 은총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아퀴나스는 신앙의 진리가 이성의 진리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 ⑤ 에픽테토스는 모든 사물에 신적 이성이 분유되어 있다고 본다.

17. 에피쿠로스와 밀 사상의 비교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얹은 에피쿠로스, 율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행복한 삶의 시작과 끝이지만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필요한 만큼만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밀은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에 반대하면서 쾌락의 양과 질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보다 우월한 쾌락이라고 본다.

정답 해설

- ㄱ. 에피쿠로스는 더 큰 쾌락을 위해 고통을 참을 경우, 그 고통이 쾌락보다 낫다고 본다.
- ㄴ. 밀은 공리의 원리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기준이 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ㄷ. 벤담의 입장에 해당한다. 밀은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다.
- ㄹ. 밀은 은둔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18.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 비교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 갑은 베이컨,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우상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참된 귀납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사유의 제1 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정답 해설

- ㄷ. 데카르트는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관념인 본유 관념이 존재한다고 본다.
- ㄹ. 두 사상가 모두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베이컨은 참된 귀납법을 행하는 데 있어 이성과 경험 모두가 필요하다고 보고,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에 있어 이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 ㄱ. 베이컨은 전통, 권위,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극장의 우상'이라고 보면서 이를 타파의 대상으로 본다.
- ㄴ. 데카르트는 사유의 제1 원리가 방법적 회의의 결과라고 본다.

19. 루소와 홉스의 사상 비교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사상가 갑은 루소, 을은 홉스이다. 루소는 개인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두어야 한다고 보며, 홉스는 개인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 계약에 합의하게 된다고 본다.

정답 해설

- ㄴ.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린다고 보지만,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린다고 보지 않는다.

ㄷ. 루소의 일반 의지에 대한 설명이다. 루소는 일반 의지인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특정인에 의해 대표될 수도 없다고 본다.

ㄹ.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대한 설명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의 불안을 해소하고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인간들이 사회 계약에 합의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ㄱ. 루소는 사유 재산이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20. 정약용의 기본 입장 이해

제시문 분석 : 제시문의 사상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성은 기호이고,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기에 사람은 금수와 달리 선하게 될 수도, 악하게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본다.

정답 해설

ㄴ. 정약용은 기질의 성인 형구의 기호는 동물과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나, 도의의 성인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ㄷ. 정약용은 인간이 사단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ㄱ. 정약용은 사덕을 본성[性]이 아니라, 후천적 형성의 대상으로 본다.

ㄹ. 정약용은 기호가 본성이기는 하나, 이치라고는 보지 않는다.

smart is sexy

Orbi.kr